

# 전주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2조원 반영

### 전년 대비 717억원 증액 총 2조368억원 정도 규모... 도·정치권과 탄탄한 삼각 공조체계 구축 등 성과 거둬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주 발전을 이끌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2조 36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의 일관된 건전재정 기조로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지출 억제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뤄낸 성과로, 시는 2년 연속 2조 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안 반영액 대비 717억(3.6%) 늘어난 총 2조 368억 원 정도 규모의 전주 관련 국가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시는 '내변혁을 통한 새로운 전주'에 한발 더 나아갈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정치권과 탄탄한

삼각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단계별 시기적절한 관련 부처 방문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312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국비 예산이 포함됐다.

먼저 미래 신산업이 역동하는 강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제·산업 분야 예산으로는 △2025 드론축구월드컵(15억 원)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 솔루션 기반구축(5억 원) △K-Carbon 플러그인 기술개발(16.5억 원) 사업비 등이 반영됐다.

또한 시는 팔복동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80억 원) 선정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7.5억 원) 등을 통해 100만 광역·미래도시 도약을 위한 예산도 쟁겼다.

여기에 정부예산에는 전주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서 가장 한국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관광거점도시 육성(17억 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35억 원)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랩 구축(8억 원)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10억 원) 사업비 △국립전주 박물관 복합문화관 조성(5.6억 원) △동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5억 원) 사업비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전(국가하천 승격기간) 하천정비(20억 원) △원동세천 정비(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엘리카펫 설치(5억 원) 등의 신규사업 예산과 더불어, △전북지역 재활병원 건립(55억 원) △객사천 재해위험지역 정비(30억 원) 등 다수 사업비를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면서 안전과 돌봄이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시는 △기린대로 BRT 구축(100억 원) △전주역사 전면개선(80억 원) △전주 육소국가산업단지 조성(168억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21억 원) 등 분야별 주요 계속사업의 국가 예산도 계획대로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각 소관 상임위,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전주시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견인할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예산 추가 확보와 삭감 방지를 위해서 전북 자치도·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초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재봉틀사업' 본격 착수

### 재능봉사자 100인 모집 프로젝트 돌입... 3개 분야 30명 위촉

전주시가 촉촉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재능을 기부받아 전주시 복지자원의 틀을 마련하는 '재능봉사자 100인 모집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 3일 정리수납, 이·미용, 누수탐사 등 3개 분야 30명의 재능봉사자를 위촉하는 것으로 재능봉사자 100인 모집 프로젝트인 '전주시 재봉틀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재봉틀 사업'은 재능봉사자 모집을 통해 복지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나눔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복지자원의 양과 질을 고도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재봉틀사업에는 먼저 △주거환경 취약계층의 정리수납을 돕기 위해 전문 강사 3인과 교육생 12명으로 구성된 정리수납 분야 재능봉사자 △의상 등의 사유로 이·미용실을 찾아 머리손질이 어



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출장 이·미용 봉사자 15명 △누수탐사 재능봉사자 등 30명이 재능봉사자로 위촉돼 활동하게 된다.

시는 올해 100명의 재능봉사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향후 △호스피스(생애 말기 돌봄) △질병에 따른 식이교육 △성인기저귀 지원 △인생사건 등 돌봄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의 재능봉사자를 추가 모집해 전주시 복지자원의 탄탄한 틀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복지가 많이 확산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손길이 미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모든 재능봉사자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대한민국 4대 종단, '전주함께라면' 동참

###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 운영 활성화 · 위기가구 발굴 협약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국내 4대 종단이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예방을 위한 전주시의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전주시기독교연합회, 천주교 전주교구, 원불교 전북교구는 4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 4대 종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인 '전주 함께라면' 운영 활성화와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4대 종단 대표는 지역 내 고립위험 위기가구 발굴과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한편, 전주함께라면 사업 확

전주시와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전주시기독교연합회, 천주교 전주교구, 원불교 전북교구는 4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 4대 종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인 '전주 함께라면' 운영 활성화와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와 나눔 기부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시는 또 이날 참석한 4대 종단 대표들과 전주함께라면 운영 확대를 위해

종교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제1호 고향사랑기금 사업인 '전주함께라면'은 누구나 먹고 가고, 누구나 놓고 가는 주민공유공간인 라면카페를 조성·운영하며 사회적 고립 은둔가구 등 외부와 단절돼 어렵게 지내고 있는 이웃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시 고유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전주함께라면 카페는 지난 6월 24일 개소 이후 전주시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0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했다.

뿐만 아니라 함께라면 카페를 찾은 시민들의 라면과 성금 릴레이 기부가 60회 이상 이어지는 등 활발한 나눔 캠페인도 전개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고립세대 등 위기 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종교계가 함께 뜻을 모아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나눔의 선순환을 통한 전주함께라면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복지재단, 추석 명절 온정나눔 꾸러미 500개 전달

추석 명절을 맞아 전주시외 소외계층에게 이웃들의 온정이 담긴 추석 선물 꾸러미가 전달된다.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4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윤방섭 이사장, 노진선 전 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임종우 회장을 비롯한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추석 명절 온정나눔 꾸러미' 포장 및 전달식을 가졌다.

전주시복지재단은 지난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전개했으며, 모금목표액 달성에 따른 성과매칭금을 받아 이번 온정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제작된 500개의 온정나눔 꾸러미는 추석 명절을 맞아 김부각과 참기름, 사골곰탕 등 11종으로 구성됐으며,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전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두근두근런' 마라톤 행사 홍보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4일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개최하는 '두근두근런' 마라톤 행사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라톤 행사는 위기의 순간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되찾은 심장지 소생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하고,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는 문화 행사이다.

행사는 10월 20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개최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마라톤 참가자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익히게 된다.

마라톤 코스는 총 9km로 1km마다 심장지 환자 발견 시 필요한 심폐소생술 단계를 학습할 수 있는 펀런(FUN RUN)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 및 코스 정보는 두근두근런 공식 홈페이지(<https://www.119cpru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 전주 완산회, 추석맞이 사랑의 성금 200만원 전달

전주시 완산구 관내 주요 유관기관 및 단체·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완산회(회장 조병두)가 4일 구청장실에서 2024년 추석맞이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열린 이날 전달식은 관계 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완산회(회장 조병두) 임원진과 회원, 그리고 관내 봉사단체 관계자들도 함

께 참석하여 그 의의를 더했다.

조병두 완산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다가오는 추석에 관내 지역의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을 살피며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완산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한편, 이번 추석맞이 사랑의 나눔 전달식에서 200만원 상당의 현금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될 예정이며, 이 성금은 이웃사랑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가구,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